

분노·슬픔 속 맞은 새해... 시·도 “민생 회복 주력”

비상계엄·참사에 지역민 고통 호소
소상공인 “힘들다는 말도 못 꺼내”
각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등 나서
상생카드 할인 확대·경영안정자금
지역 소비진작·매출 증대 ‘안간힘’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주변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 연말 계엄 사태와 항공기 참사로 인한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음모에 분노한 것도 잠시, 179명의 애꿎은 생명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숨진 충격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상품권 확대 등 경기 부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연말 대목 기대감을 짓밟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12월 체감경기와 전망 경기지수(BSI)는 모두 대폭 하락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달 체감 BSI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3.7로 전월 대비 8.7p 하락했다.

전통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장 상인들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49.7로 전월 대비 13.5p 떨어졌다. 소비심리 위축(54.9%)과 정치적 불확실성(28.4%)이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도 어수선한 정국 속에 연말 모임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연말 모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청사 주변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였고, 각 부서별로 송년회를 적극 권장했다. 정치권도 연말연시 모임을 만들며 경기 부양에 집중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29일, 태국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지역민으로, 광주·전남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회식 등 모임은 실종됐고, 선물을 주고 받는 연말 분위기도 사라졌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식당 대표는 “예년에 비해 70%정도 손님이 줄었다. 늦은 저녁엔 아예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누굴 탓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모여 술 마시는 것이 죄짓는 기분일텐데”라며 “새해라고 해도 딱히 뭐가 풀릴 것 같지 않다. 코로나 19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와 전남도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을 기존 7%에서 10%로 늘렸다. 반값 대중교통 광주 G-패스도 시행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818억원을 투입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생카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맞춤형 저출생 대응 사업인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와 소상공인 아이돌봄,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 대체 인력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별보증 규모 1700억원, 자금지원 3000억원,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대출이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23개 사업에 예비비 1185억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자체 예산으로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할인을 10%로 확대 지원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촉진



윤석열 대통령 추정 남성 포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 근처에서 오마이뉴스TV 생중계 도중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빨간 원)이 포착됐다. 오마이뉴스TV 제공

에 나설 예정이다.

경영난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기존 50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15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이자차액도 기존 지원율보다 0.4%p 추가 지원해 실제 부담률도 1~2%대로 낮춘다. 배 재배농가와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운

을 겪고 있는 전북 양식어가, 김 가공업체 등에도 총 91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료비 상승 및 수확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지급한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최대 9일 ‘황금연휴’

정부·여당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설 연휴 내수 진작·관광 활성화”

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최장 6일까지 늘어나면서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교통

량 분산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전 월요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김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 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

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에 의한 교통량 분산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27일 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27일 임시공

휴일 지정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생필품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며 “서민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경제·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이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